탁연하·조규일·박행보…원로작가들이 전하는 호남미술

광주시립미술관 '아카이브 프로젝트 2탄'

작품·영상·도록·사진·구술채록 등
내년 2월 19일까지 전시
광주·전남 미술사 자료 한 눈에

조규일 작 '무등산 설경'

최근 광주시립미술관에서 만난 조규일(82) 화백은 스승 고(故) 오지호 화백과 1982년 울릉도에서 찍은 사진 앞에서 감회에 젖었다. 이 사진을 찍은 후 얼마되지 않아 오 화백은 교통사고를 당했고 6개월 뒤인 그해 12월 세상을 떠났다. 스승과의 마지막 추억이기에 조 화백이 평생 간직한 소중한 사진이었다.

"노력, 노력, 또 노력. 오지호 선생님은 한국적 인상주의를 만들라고 가르치셨죠."

광주시립미술관이 지난해부터 진행하고 있는 '아카이브 프로젝트 : 호남미술을 말하다'는 지역 원로작가들에게 호남미술사를 생생히 들을 수 있는 기회이다. 작품을 비롯한 구술채록 영상·채록문, 사진, 신문기사, 엽서, 전시 팸플릿, 화첩, 상장 등 여러 자료를 함께 선보인다. 특히 구술채록은 문헌 자료가 부족한 광주·전남미술사 연구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미술관이 2017년 2월19일까지 아카이브 프로젝트 두번째 전시를 연다. 이번 전시에는 조 화백을 비롯해 성오 탁연하(84), 금봉 박행보(81) 화백 등 1930년대 초중반에 태어난 작가들을 초대했다

1930년대 이전 출생한 작가(백영수·김영태·김옥진·김형수·박남재)들을 소개했던 1차와 달리 이번에는 조각과 서양화, 한국화 등 다양한 장르를 선보인다.

탁 화백은 목포 출신으로 한국전쟁 당시 종군작가단에 참여한 경력이 있다. 상무대 문관 시절 '을지문덕상'(1953) 제작에 참여하며 조각을 시작했다. 홍익대 조각과에 편입한 이후 한국전쟁 중 가족을 잃은 심정을 담은 '피난가족'과 웅크린 조각 등을 통해 각종 대회에서 수상하며 두각을 나타냈다. 광주공원 '어린이 헌장탑'(1966·현 목포 유달공원) '4·19학생의거 기념탑'(1961), '동학혁명기념 전봉준 장군 동상'(1963·전북 황산), '충장공 김덕령 장군 기마상'(1972·광주상무공원) 등이 그의 작품이다.

조선대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며 광주·전남 초기 조각계 기반을 다졌으며 1975년 이후에는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다. 1980년대 후반부터는 추상조각 '트위스트'(Twist) 연작과 함께 한국전쟁을 형상화한 '수장'을 제작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탁 화백이 소장한 여러 사진 자료를 통해 기록으로만 전해졌던 초창기 광주·전남 조각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조 화백은 보성 출신으로 자연을 단순한 구성과 밝은 색채로 생동감 있게 표현하는 화가이다. 1954년 조선대에 입학했고 대한민국미술대전 입선 10회·특선 2회, 목우회 입선 6회·입상 3회, 전라남도미술대전 입선 3회 등 다수 상을 받았다. 조선대 시절부터 오지호 화백을 스승으로 모셨던 그는 오 화백의 생명감 넘치는 색채 표현과 구상적 회화에 영향을 받았다. 1992년 고향 보성에 백민미술관을 설립했으며 지난해 '제18회 자랑스런 박물관인상' 수상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조 화백은 대표작품과 함께 '백민'이라는 아호를 써준 오 화백의 친필, 주고받았던 서신, 미술전시회 팸플릿 등 평생 간직했던 자료를 출품했다.

진도 출신 박 화백은 의재 허백련에게는 한국화, 소전 손재형 선생에게는 서예, 만취 위계도 선생에게 한학을 사사했다. 박 화백 작품 특징은 대범하게 그린 외곽선과 서정적인 색채, 자유로운 먹 농담이다. 대한민국국전에서 동양화 부문 3회 입선, 사군자 부문 4회 입선·6회 특선을 했고 문화공보부장관상(1973), 국무총리상(1974)을 수상했다.

지난해 광주시 북구 시화문화마을에 금봉미술관이 개관했고 올해에는 진도군 운림산방에 금봉미술관이 문을 열기도 했다. 전시실에서는 작품과 즐겨 쓰는 한시, 난초와 수석 등을 함께 볼 수 있다. 문의 062-613-7142.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박행보 작 '진도 아리랑'

탁연하 작 '트위스트'

'아카이브 프로젝트 2 : 호남미술을 말하다'가 열리고 있는 광주시립미술관. 〈광주시립미술관 제공〉

음악으로 만나는 하루키와 미야자키 하야오

29일 광주문예회관
'아름다운 작은 음악회'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작품에는 언제나 다양한 음악들이 등장한다. 소설 '1Q84'의 첫 대목, 주인공 '아오마메'가 택시 라디오에서 듣는 야나체크의 '신포니에타' 등이 인상적이다.

재패니메이션의 거장 미야자키 하야오의 영화와 뗄 수 없는 건 오랜 파트너 히사이시 조가 만든 아름다운 음악들이다.

하루키 소설에 등장하는 클래식 음악과 미야자키 하야오의 영화 속 OST를 들을 수 있는 '렉처 콘서트 하루키, 미야자키 하야오를 만나다'가 오는 29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광주문예회관이 올해 처음 기획한 '아름다운 작은 음악회' 공연이다.

1부 '클래식, 무라카미 하루키를 말하다'에서는 '상실의 시대'에 등장했던 드뷔시의 '베르가마스크 모음곡' 중 3번 '달빛', '색채가 없는 다자키 쓰쿠르와 그가 순례를 떠난 해'에 등장한 슈만의 '어린이의 정경' 중 '트로이 메라이' 등이 연주된다.

2부 '미야자키 하야오의 동반자 히사이시 조'에서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사진〉, '하울의 움직이는 성', '천공의 섬 라퓨타', '모노노케 히메' 등의 음악을 만날 수 있다. 또 미야자키 하야오의 인생과 작품 세계까지도 엿볼 수 있는 기회다.

신예 지휘자 안두현의 해설로 김지윤·정윤영(바이올린), 스티브 리(비올라), 박고운(첼로), 김재원(피아노)씨가 연주한다.

티켓 가격 일반 2만원, 청소년 1만원(할인 50%). 문의 062-613-835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현대미술작가 5명 초대전

담양 담빛예술창고 내달 12일까지

담양 담빛예술창고에서 2016 대관공모전의 하나로 12월12일까지 '현대미술작가' 초대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담양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재민, 김재성, 윤윤덕 작가를 비롯해 이하윤(뉴욕), 홍원철(광주) 등 작가 5명이 참여한다. 작가들은 회화, 설치, 조각 등 작품 30여점을 출품하며 다양한 현대미술을 소개한다.

김재민 작가는 조선시대 백자를 캔버스에 옮겼다. 백자가 가지고 있는 조형적 아름다움을 대담하게 배치하고 겉표면에 조선시대 민화나 인물화 등을 그려 넣었다.

김재성 작가가 출품한 '질서에 관한 어법' 연작은 기하학적 패턴을 통해 다양한 이미지를 표현한다. 미륵보살반가사유상, 예수상, 꽃무늬를 그리고 화면 빽빽이 침핀을 꽂아 사색과 명상메시지를 담았다.

미국에서 거주하며 활동하고 있는 이하윤 작가는 인간 욕망과 행위를 형이상학적으로 풀어낸다. 작품 'Two Codes', 'In the Beginning' 등은 고요한 바다에 꿈틀거리는 형체를 담아 인내와 사유를 추구하는 마음을 전달한다.

그밖에 윤윤덕 작가는 '무등의 메타포'를 통해 인간 내면을 탐구하고 홍원철 작가는 '푸들' 등 동물 소재 조각으로 빠르게 변하는 현대사회를 꼬집는다. 문의 061-380-3488. /김용희기자 kimyh@

김재민 작 '낙토'